東亞

【第3種郵便物(가)급認可】

취업정보 교환회 열려

「기업은 고용차별철폐, 여성은 실력배양」。11일 한국여성개발원이 마련한 여성인력 취업정보 교환협의회에서 모아진 결론이다。여성취업을 높이고 여성직업안내 사업을 효율화하기위해 마련된 이날 협의회에는 정부 기업및 대학취업담당자등 50여명이 모여 정보를 나눴다。

女性취업률 高卒 계속 늘고 大卒 크게 줄어

문교통계연보에 따르면 대졸여성취업률은 해마다 크게 떨어져 82년 67·7%에서 87년에는 37·3%에 불과하다。특히 인문사회계열 대졸여성의 취업률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는 졸업정원제 실시이후 인문사회계열의 정원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대졸여성의 취업률이 이같이 낮은데 비해 전문대졸과 고졸여성의 취업률은 꾸준히 늘어나 87년도에 각각 72·7%, 83·3%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의 취업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노동부 고용관리과 張在久사무관은 『여성인력의 고학력화는 멀리보면 취업증대에 연결되지만 당장으로서는 오히려 취업에 장애가 되고있다』며 현재 저학력 단순생산 기능인력이 크게 모자라므로 고졸주부들의 시간제 공장취업이 취업난 해결의 한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앞으로는 지식집약산업 금융서비스업 정보통신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전문직 여성인력 수요가 늘어날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고용차별철폐와 여성의 실력배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 내년 4월부터 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돼 성별에 따른 응시제한을 하지못하게 되지만 강제규정이 없는 이 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도록 하려면 기업이 자발적으로 고용차별을 없애야하고 여성도 확고한 직업관과 실력으로 취업전선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張사무관은 지적했다。

여성취업을 높이기위해서는 여성직업안내기관의 활성화가 뒤따라야할 일。여성개발원의 愼鏞子 자원개발실장은 『개발원의 무료 직업안내소의 경우 취업알선뿐아니라 취업여성의 성차별사례를 모아 개선을 꾀하는 일까지 맡고 있다』며 특히 「남녀 고용평등법」 시행이후에는 기업측이 정직하게 법을 따르고있는지를 감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順德기자〉

'80. 12. 12